

『四醫經驗方』의 藥物名에 대하여*

A Study on Medicine Name of *Sauigyeongheombang*

鄭 丞 惠 (Chung, Seunghye)**

◁ 목 차 ▷

- | | |
|---------------------|--------------------------|
| 1. 緒 言 | 3.1 『四醫經驗方』 「藥物名」의 異本 對照 |
| 2. 『四醫經驗方』의 異本과 編著者 | 3.2 국어학 자료로서의 연구 가능성 |
| 2.1 『四醫經驗方』의 異本 | 4. 결 어 |
| 2.2 『四醫經驗方』의 편저자 | <참고문헌> |
| 3. 『四醫經驗方』의 「藥物名」 | |

<초 록>

『四醫經驗方』은 李碩幹, 蔡得己, 朴濂, 許任 등 네 명의 의사가 처방한 經驗方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名醫의 經驗方과 기타 문헌들을 참고하여 이의태가 편집한 의학서이다. 한자로만 쓰여진 이 책을 읽는 데 필요한 鄉藥名을 한글로 써 놓은 것이 ‘藥物名’인데, 이것은 당시에 사용된 한약재의 목록이라 할 수 있다.

14개 항목 299종의 약물명이 수록되어 있는 『四醫經驗方』은 그동안 한의학 자료로서만 이용되어왔다. 여기서는 『四醫經驗方』의 여러 이본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들 간의 대조를 통하여 이 자료가 醫方(醫學書)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國語學 資料로서도 효용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자료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物名의 연구와 더불어 近代國語의 語彙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要語: 『四醫經驗方』, 鄉藥名, 藥物名, 物名, 近代國語語彙

<ABSTRACT>

Sauigyeongheombang is a traditional Korean medical textbook based on experiential prescriptions made by Lee Seok-gan, Chae Deuk-gi, Park Ryeom, and Heo Im, as well as prescriptions and other previous literature. It is edited by Lee Eui-tae. Yakmulmyeong is a book of Korean transliteration of medicine names that were written only in Chinese characters. As such, it is a list of traditional medicinal ingredients used at the time. *Sauigyeongheombang* lists 299 types of medicinal ingredients in 14 categories, but it has only been used as a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reference. This paper considers and compares various editions of *Sauigyeongheombang* to reveal the book's effectiveness as a reference for Korean language studies, as well as a medicinal textbook. In conjunction with recent rise in the study of object names, the book assists with the research of modern Korean vocabulary.

Key words: *Sauigyeongheombang*, traditional medicinal ingredients, Yakmulmyeong, Mulmyeong, modern Korean vocabulary

* 본 연구는 2018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수원여자대학교 비서과 교수(cshblue@chol.com)

투고일: 2019년 5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26일
서지학연구, 제78집, 149-173,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8.149]

1. 緒 言

『四醫經驗方』은 조선 중기에 4명의 명의들의 경험처방과 당시 유행하던 유명 처방을 모아 간행한 의방서이다. 불분권 1책으로 된 이 책에는 서문과 발문이 없어 자세한 간행경위는 알 수 없고, 줄여서 『經驗方』이라고도 부른다. 이 책은 조선 중기 이후 가장 널리 보급된 의방서 중의 하나이며, 본문에 앞서 권두에 李碩幹, 蔡得己, 朴濂, 許任 등 4명의 이름과 ‘本草’, ‘東醫’, ‘聞見方’ 등 인용된 문헌명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이 책의 ‘四醫經驗’이란 전술한 네 사람의 경험처방을 말한다. 공동저자의 책이지만 그들이 직접 공동 작업을 해서 집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명의들의 경험방과 기타 문헌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이면서도 실용적이고 간편한 처방서가 필요해서 누군가가 편집한 것으로 보아왔다.

본문은 두(頭), 이(耳), 목(目), 비(鼻), 구(口), 인후(咽喉) 등 외형질환을 먼저 열거하였고 음식(飮食), 소갈(消渴), 창종(瘡腫) 등과 같은 잡병과 부인, 소아의 순으로 간명하게 설정되어있다. 치료법은 대개 두세 줄 이내의 간편한 것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약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골라 쓰기에 좋도록 구성되어있다. 또 병명에 따라서 간혹 한글로 설명을 붙여 풀이해 놓은 곳도 있는데 예를 들면 頭正痛은 ‘온머리알느증’ 正痛及偏痛은 ‘변두통이나 온두통’ 등과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간단히 설명을 달아놓았다. 본문에는 각 조문마다 마지막에 약칭을 사용하여 일일이 출전주기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원작자나 인용문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책은 크고 작은 두 가지 형태의 목판본 또는 목활자본이 있는데, 대략 대형 목판본은 조문수가 더 많고 출전표기가 잘 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비해 袖珍本 형태의 소형 목판본은 분량이 훨씬 적고 출전이 생략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뒤에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압축된 판본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은 실용적인 가치가 높아 인쇄본보다는 대부분 필사본으로 더 많이 유포되었으며, 필사본은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 중 일부를 덧붙이거나 덜어낸 경우가 많다.

『사의경험방』은 2007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국역본이 간행되면서 서지적 특성을 포함한 간단한 해제가 이루어졌고, 한의학계에서 오준호 외(2010), 박상영(2015) 등에서 醫方으로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국어학 등 다른 분야에서는 주목하지 않아 왔다. 이 책의 본문은 대부분 한자로 기술되어 있으며, 傳本에 따라 본문 앞에 ‘藥物名’을 표기하고 鄉藥名과 이에 대한 한글 표기가 덧붙여 있거나, 본문 뒤에 따로 향약명을 정리한 것이 있다. ‘草, 木, 禽, 獸, 果, 菜, 蔬, 水, 火, 蟲, 金, 人, 土, 石’ 등의 14개 항목 299종에 달하는 약물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는 현전하는 이본들의 간단한 서지적 고찰과 더불어 한글로 표기된 299개 약물명 표기의 이본 간 비교를 통해 이 자료의 국어학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四醫經驗方』의 異本과 編著者

『四醫經驗方』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일본 동경대 小倉文庫, 일본 東洋文庫 및 다수의 국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다섯 곳의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기타 문헌은 간단한 서지정보만 제공하기로 한다.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四醫經驗方』의 異本과 서지사항 I

소장처	圖書番號	書名	版本	書誌 事項
서울대 규장각	一簑古 615.135-G998b	經驗方	木板本	[刊地未詳]: [刊者未詳], [刊年未詳] 1冊(49張): 四周單邊 半郭 26.8×19.3cm, 有界, 10行 30字 上下花紋魚尾: 36.2×23.4cm 卷頭書名 經驗方 印記: 大同文叢
	一簑古 615.135-G998h	經驗方	木板本	[刊地未詳]: [刊者未詳], [刊年未詳] 1冊(49張): 四周單邊 半郭 28.2×19cm, 有界, 10行 30字 上下花紋魚尾: 35.4×23.2cm 卷頭書名 經驗方
	一簑古 615.135-H41g	經驗方	木板本	[刊地未詳]: [刊者未詳], [刊年未詳] 1冊(落張): 四周單邊 半郭 28.3×19.2cm, 有界, 10行 30字 上下花紋魚尾: 34×22.6cm 卷頭書名 經驗方
日本 오구라문고	(新) L174596	經驗方	木板本	[刊地未詳]: [刊者未詳], [刊年未詳] 1冊(49張): 四周單邊 半郭 28.5 × 20cm, 有界, 10行 30字 上下花紋魚尾: 38.8 × 23.9cm 卷頭書名 經驗方
	(新) L174597	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線裝 不分卷1冊(45張): 10行 字數不定: 23.0 × 17.0 cm 卷頭書名 經驗方 주기사항 권말 약물명 편철이 바뀌었음
고려대	만송 C6 A19A	經驗方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四周單邊 半郭 18.5 × 19.4 cm, 有界, 10行不定字 小字雙行, 內向黑-2葉花紋魚尾: 25.4 × 22.5 cm.
	C6 A127	四醫經驗方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四周單邊 半郭 12.0 x 8.4 cm, 有界, 7行24字 小字雙行, 上白魚尾: 16.8 x 10.5 cm. 일반주기 版心題: 經驗方, 袖珍本
한글박물관	--	經驗新方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線裝 不分卷1冊(24장, 落帙): 10行字數不定: 23.0 × 17.0 cm 卷頭書名 經驗新方
일본 東洋文庫	Ⅶ-3-163	經驗方	木版本 筆寫本	[刊地未詳]: [刊者未詳], [刊年未詳] 不分卷2冊: 목판본 四周雙邊 半郭 18.8 × 13.9 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葉花紋魚尾 필사본 線裝 不分卷1冊: 23.4 × 17.4 cm 주기사항 『痘瘡經驗方』(목판본)과 『經驗方彙編』(필사본)의 합철. 印: 金濟謙印: 在山樓蒐書之一 藏書記: 前間氏所藏

2.1 『四醫經驗方』의 異本

2.1.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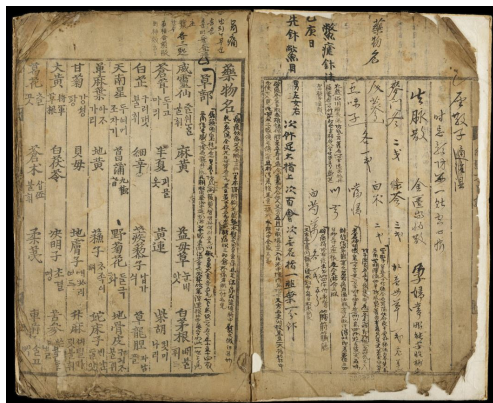
규장각에 소장된 『사의경험방』은 『경험방』이라는 서명으로 3종이 있는데, 모두 동일한 목판본으로 經驗方目錄(2장)과 藥物名(4장) 및 본문(43장)을 합하여 총 4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험방』(一簣 古 615.135-G998b, <그림 1>)는 경험방목록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경험방』(一簣 古 615.135-G998h, <그림 3>)는 경험방목록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경험방』(一簣 古 615.135-H41g, <그림 4>)는 경험방목록 부분과 42장 이하가 낙장되었고 또한 배접하면서 본문 39, 40, 41장이 뒤바뀌었다.



<그림 1> 『經驗方』(一簣古 615.135-G998b)의 藥物名



<그림 2> 『經驗方』(一簣古 615.135-G998b) 본문



<그림 3> 『經驗方』(一簣古 615.135-G998h) 藥物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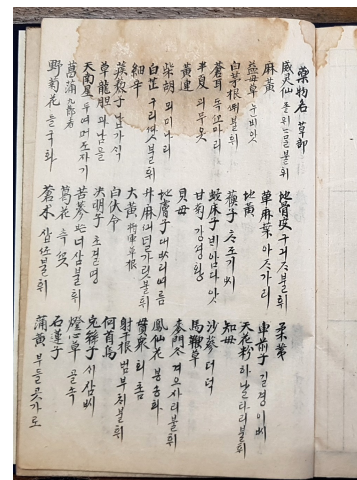
<그림 4> 『經驗方』(一簣古 615.135-H41g) 藥物名

2.1.2 일본 동경대 小倉文庫[오구라문고] 소장본

일본 동경대학의 小倉文庫[오구라문고]에는 목판본과 필사본의 『사의경험방』이 전한다. 이들은 후쿠이 레이 교수의 목록에서 『經驗法』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었던 것이다.¹⁾ <L174596, <그림5>>은 규장각본과 동일 판본의 『경험방』이다. <L174597, <그림 6>>은 필사본으로 1책(45장)으로 되어 있고 본문 41장, 권말에 藥物名이 4장 부재되어 있다.



<그림 5> 『經驗方』(L174596) 藥物名



<그림 6> 『經驗方』(L174597) 藥物名

2.1.3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현재 고려대학교에는 목판본 2종, 필사본 1종, 세 종류의 『사의경험방』이 전한다.

『경험방』(만송 C6 A19A, <그림 7>)는 목판본으로, 규장각본과 동일 판본이고 군데군데 이음줄이를 사용하였다. 『경험방』(C6 A127, <그림 8>)은 袖珍本의 형태로 된 목판본으로, 한글로 된 약물명이 붙어있지 않다. 『경험방』(신암 C6 A19)는 필사본으로 앞의 두 책과 완전히 다른 『경험방』이다. 한글로 된 약물명이 ‘藥材註’라는 이름으로 부재되어 있기는 하나,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藥物名’과는 순서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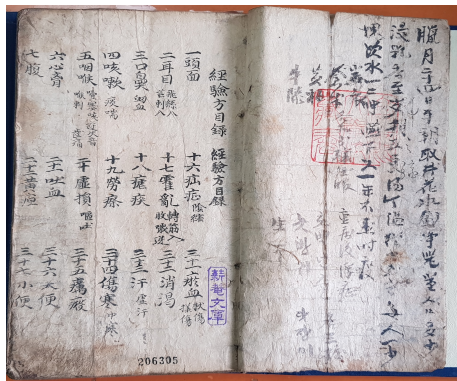
1) 이들은 정승혜 외 3인, 『일제강점기 해의 반출 조선 전적 현황 조사 연구: 도쿄대학 소장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구(舊) 장서를 중심으로』(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정책연구보고서, 2015)에서 바로잡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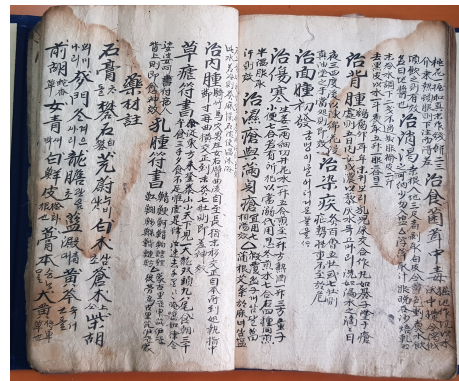
<그림 7> 『經驗方』(만송 C6 A19A) 藥物名



<그림 8> 『經驗方』(C6 A127) 本文



<그림 9> 『經驗方』(신암 C6 A19) 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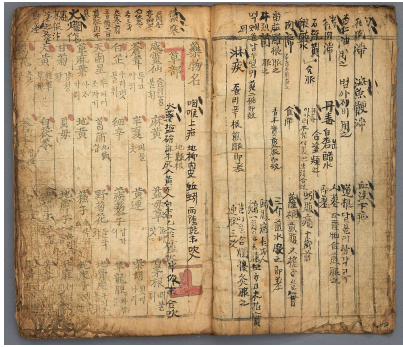


<그림 10> 『經驗方』(신암 C6 A19) 藥材註

2.1.4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사의경험방』(이하 한박본)은 목판본으로, 홍운표(2018: 333)에서 최초로 소개되었다. 17세기 간본으로 추정되며, 표지제목은 <經驗新方>이고 내지 제목이 없다. 1책 24장 (약물명 4장, 본문 20장)(落帙)²⁾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과 같은 판본으로 보이나, 약물명의 3b면 가운데 ‘冬瓜 동화빠’ 부분이 줄표(|)로 판각되어 있어, 어느 한쪽이 補板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림 12> 및 <그림 13>의 O 부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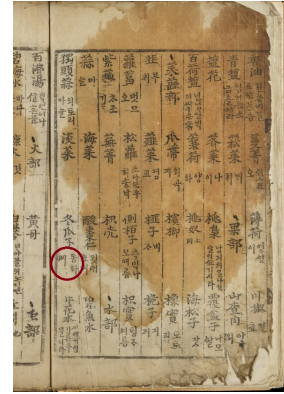
2) 이본들과 비교하면 총 43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책은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經驗方』(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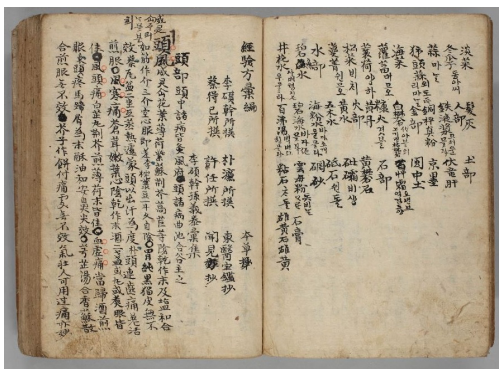
<그림 12> 한글박물관본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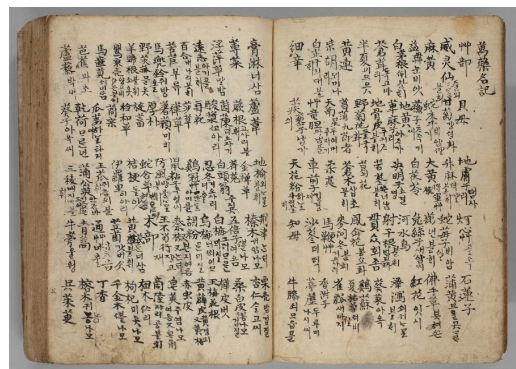
<그림 13> 규장각본3b

2.1.5 일본 東洋文庫 소장본

일본 東洋文庫에는 不分卷 2冊의 『經驗方』(Ⅶ-3-163, <그림 14>, <그림 15>)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은 서적의 형성에 있어 전혀 연관이 없는 『두창경험방』을 乾卷으로 삼고 『경험방휘편』을 坤卷으로 삼아 ‘經驗方’이라는 틀 아래 묶어놓은 책이다. 건권은 목판본이며 언해가 부기되어 있으나, 곤권은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³⁾ 이 가운데 『경험방휘편』은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四醫經驗方』과 거의 동일하며 표지 상단 왼쪽에 ‘經驗方 坤’이라 하고 오른쪽에 ‘雜病’이라 적혀 있다. 坤권은 그 아래에 목차를 적시한 다음, 『萬藥名記』라는 항을 통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본초 약제를 14개의 部로 나누고 292개의 약제에 대해 목록과 향약명칭을 언해로 부연하고 있다.



<그림 14> 『經驗方』(東洋文庫Ⅶ-3-163) 경험방휘편



<그림 15> 『經驗方』(東洋文庫 Ⅶ-3-163)『萬藥名記』

3) 이렇듯 전혀 상관이 없는 의서가 같은 제목 하에 묶이는 것은 임상을 위한 편의에 따라 의서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다.

2.1.6 기타

이밖에도 다수의 『四醫經驗方』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영남대 도서관, 성균관대 존경각, 연세대학교 학술원, 원광대 도서관, 숙명여대 도서관, 경상대학교 도서관, 단국대 을곡도서관 등에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전한다. 다음 <표 2>와 같다.⁴⁾

<표 2> 『四醫經驗方』의 異本과 서지사항 II

소장처	圖書番號	書名	刊本/寫本	書誌 事項
한중연 장서각	C7-22	經驗方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四周單邊, 上下2葉花紋魚尾 ; 35.0 × 22.8 cm 주기사항 表紙書名: 群의妙訣 印: 宋氏傳家
영남대 도서관	古南519.2사의경	四醫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 28.3 × 20.8 cm
	古南519.2사의경교	四醫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 21.1 * 18.2 cm
	古南024.9	四醫經驗方	木板本 (袖珍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37張): 四周單邊 半郭 12.2 × 8.3 cm, 無界, 14行 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17.0 × 11.2 cm 版心題: 經驗方
숙명여대 도서관	615.6	經驗方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線裝 1冊: 四周單邊 半郭 29.0 × 20.0 cm, 有界, 10行 字數不定,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36.0 × 23.0 cm 주기사항 내용일부를 補寫하였음. 背接하였음. 파손 심함
성균관대 존경각	C07-0077	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朝鮮朝末期]寫 線裝 不分卷1冊: 10行 字數不定 ; 23.0 × 17.0 cm 주기사항 劍如 格紙
	C07-0077b	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朝鮮朝末期]寫 線裝 不分卷1冊: 11行 字數不定 ; 21.0 × 17.7 cm
	C07-0077c	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朝鮮朝末期]寫 線裝 1(卷下)冊: 12行24字 ; 32.3 × 20.5 cm 주기사항 丘庸 格紙
연세대 학술원	610.8	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線裝 1冊: 無界, 14行 字數不定, 無魚尾 ; 23.8 × 22.0 cm 주기사항 一部 國漢文混用本임
	610.8	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線裝 1冊: 無界, 12行32字內外, 無魚尾 ; 31.7 × 20.5 cm 주기사항 國漢文混用本임
원광대 도서관	519.8	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線裝 1卷1冊: 無界, 半葉11行16字 註雙行 ; 22.1 × 12.8 cm 주기사항 格紙

4) 이들에 대한 서지정보는 『한국고전적중합목록』에서 가져온 것이다.

소장처	圖書番號	書名	刊本/寫本	書誌 事項
경상대 도서관	C7-경93	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線裝 不分卷1冊: 半葉12行20字 ; 25.2 × 19.5 cm
단국대 울곡도서관	고615.892-사232	四醫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線裝1冊(72張): 無界, 行字數不定 ; 9.0 × 17.8 cm
모덕사 소장본	---	四醫經驗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無界, 12行20字 註雙行 ; 23.5 x 21.0 cm 주기사항 表題: 經驗方 合綴 金珠不換方, 舟村外科經驗, 名醫經驗方, 異傳秘方 所藏印: 崔元植印

2.2 『四醫經驗方』의 편저자

『四醫經驗方』의 ‘四醫’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저자는 4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李碩幹(1509-1574), 蔡得己(1600년경?), 朴濂(1600년경), 許任(1570?-1647?)으로, 이 책은 이들의 경험방들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의 경험방을 조합해서 형성되었다. 이 책은 공동저자의 책이지만 그들이 직접 공동 작업을 해서 집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명의들의 경험방과 기타 문헌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이면서도 실용적이고 간편한 처방서가 필요하여 누군가가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는 본문이 시작되는 곳에 이 책에 인용된 처방을 보여주는 ‘李[李碩幹]’, ‘朴[朴濂]’, ‘蔡[蔡得己]’, ‘許[許任]’, ‘東[東醫寶鑑]’, ‘聞[聞見方]’, ‘本[本草]’ 등의 표시가 있다. 『東醫寶鑑』, 『聞見方』, 『本草』 등은 서명이지만, ‘李, 朴, 蔡, 許’ 등은 인명에서 따온 것이다. 이 4인의 명의를 이들이 당시에 서로 교류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대에 크게 유명을 떨쳤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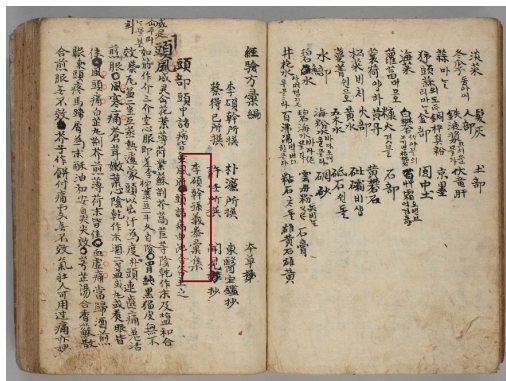
李碩幹⁵⁾은 공주 이씨로 자가 仲任, 호가 草堂이며 생원 李誠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의학에 매우 밝아 명나라 皇太后的 괴이한 병을 고쳐주고 황제에게서 天桃 씨로 만든 한 쌍의 술잔을 받았다고 전하는 인물이다. 그의 의술은 家傳되어 그의 후손인 李義泰(李義泰, 1700년경)에 이른다. 蔡得己는 『四醫經驗方』의 판본들과 『三意一驗方』, 『廣濟秘笈』의 引據諸書 등에서는 ‘蔡得己’ 혹은 ‘蔡得己’로 적고 있는데, 이 ‘蔡得己’ 혹은 ‘蔡得己’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⁶⁾ 다만 이석간, 채득기, 박림 등의 세 의가의 경험방을 중심으로 꾸며진 『三意一驗方』⁷⁾에 蔡得己의 경험방 말미에 ‘鶴’이라고 적고 있어, 이는 鶴丁이라는 호를 가진 채득기(蔡得沂, 1605-1646)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朴濂은 號가 悟漢으로, 생몰연대 및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5)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산청군 한의학박물관 소재 『李石澗經驗方』을 발굴한 바 있는데, 처방이 매우 독특하고 지방색이 뚜렷하며 다른 서적에서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李碩幹’과 ‘李石澗’은 동일인물일 것으로 파악된다(박상영, 『동양문고 『경험방』 해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

6) 이 인물이 채득기(蔡得沂, 1605-1646)라는 설이 있지만 ‘蔡得己’와 ‘蔡得沂’가 동일인물인지는 미정의 상황이다(박상영, 앞의 글 참조).

7) 조선 중기 의사인 박림(朴濂), 채득기(蔡得己), 이찬(李贊)이 함께 저술한 서적이다.

없다. 『四醫經驗方』, 『三意一驗方』 등에 處方이 收錄되어 있다.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2018)에 의하면, 1591년 3월 21일 醫員으로 平難元從三等에 錄動되었다고 한다. 許任은 임란직후 등장하여 큰 명성을 떨쳤던 침구의가이다. 그는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학에 입문하였으며, 내의원에서 鍼醫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치료 실력을 발휘하였다. 왕의 신임 속에서 마진군수, 실침지 등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영평현령(1616), 양주목사, 부평부사(1617), 남양부사(1622)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말년에는 자신의 의학적 견해를 모아 『鍼灸經驗方』(1644)을 저술하였다.



<그림 16> 『경험방회편』의 편저자 사항

그러면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단서는 동양문고 소장의 『經驗方』에서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양문고의 『경험방』은 서적의 형성에 있어 전혀 연관이 없는 『두창경험방』을 권권으로 삼고 『경험방회편』을 권권으로 삼아 ‘경험방’이라는 틀 아래 묶어놓은 책이다. 권권의 『경험방회편』은 약물명을 언해한 ‘萬藥名記’ 다음에 서적명인 ‘經驗方彙編’을 다시 쓰고, 4인의 원저자를 기술하여 ‘本草抄’, ‘東醫寶鑑抄’, ‘聞見錄抄’ 등을 써서 이 책의 원내용의 저자 및 출처 등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李碩

幹孫義泰彙集’이라고 써서, 이 책을 彙集한 사람이 이석간의 손자인 李義泰임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사의경험방』은 미키 사카에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서 『經驗方彙編』과 모종의 관계를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 했었는데, 『경험방회편』을 대조한 결과, 맨 마지막에 부기되어 있는 ‘辟瘟新方’을 제외하면 목차구성 및 내용이 『사의경험방』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의경험방』의 편자가 바로 이의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⁸⁾ 이의태는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2018)에 의하면, 전주이씨 壽春君派 38世로 생몰년은 알 수 없고, 1727년(英祖 3) 典醫監의 直長을 지낸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이 편집된 것은 17세기말-18세기 초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에 있는 이 자료의 해제에는 이 경험방회편이 다른 『四醫經驗方』의 모태가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국어학적으로 이들의 표기를 살펴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⁹⁾

8) 박상영의 『사의경험방』 해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의서 가운데 『사의경험방』은 체제가 간결하고, 한 처방에 사용되는 약제 수가 적으며(단방이거나 2-3가지 약제가 주종이다), 약제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의학의 자국화를 가능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져 왔다. 열람의 용이성과 처방 구사의 용이성으로 인해 조선후기에는 매우 유행하는 처방서가 되었고, 목판본뿐 아니라 많은 필사본을 남겼으며 또 수진본까지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책의 4명의 원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있었으나 이 원저자의 책을 누가 모아서 편집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으므로 동양문고의 『경험방회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상영, 『동양문고 『경험방』 해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

9) 이는 후대에 목판본을 필사하면서 당시의 표기로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四醫經驗方』의 「藥物名」

3.1 『四醫經驗方』 「藥物名」의 異本 對照

『四醫經驗方』에는 草部, 木部, 禽部, 獸部, 果部, 菜部, 蔬部, 水部, 火部, 蟲部, 金部, 人部, 土部, 石部 등 14개 항목 299종에 달하는 약물명이 수록되어 있다. 한자로 된 약물명을 표제로 하고, 이에 대한 鄉藥名¹⁰⁾이 한글로 붙어있는데, 형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物名類와 같다. 특이한 점은 『사의경험방』의 목판본은 약물명의 순서가 ‘右 → 左’로 표기되는 형식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물명류 자료는 대부분 필사본인데, ‘上 → 下’의 순서로 필사되어 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목판본으로 된 『사의경험방』을 필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오구라문고나 동양문고의 필사본에서 약물명의 순서가 ‘上 → 下’ 방향으로 필사되어 있어, 본래의 목판본의 순서와 달리 차례가 뒤죽박죽되었다. 현전하는 목판본은 대부분 같은 판이거나 그 복각본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5종의 목판본과 오구라문고의 필사본의 ‘藥物名’과 동양문고의 경험방휘편에 수록된 ‘萬藥名記’를 對較하고자 한다. 여기 제시한 목판본은 규장각본 3종, 고대 만송문고본(C6 A19A), 한글박물관본, 오구라문고본(L174596)이다. 이들을 對較하면 아래와 같다(<표 3> 이하 <표 16>까지).

아래에 제시한 약물명에서 목판본은 규장각본 3종, 고대 만송문고본(C6 A19A), 한글박물관본, 오구라문고본(L174596)의 언문표기인데, 오구라문고본에서 필사하여 추가된 항목인 ‘순치, 복나므, 홍합, 텅즈넝달’ 외에는 모두 같은 표기를 보인다. 한편, 오구라문고 『經驗方』의 필사본에 나타나는 향약명과 동양문고 『經驗方彙編』의 ‘萬藥名記’를 목판본의 표기와 비교하면 굵은 글씨로 보인 항목이 언문표기가 일치하는 예인데, 총 299항 가운데 24항만이 표기의 일치를 보이고 나머지는 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준다. 즉 0.08퍼센트만이 같은 표기를 보이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표기는 시대적인 변화에 의한 표기법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방언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자료의 이본에 대한 소개와 서지적 내용, 전체적인 자료의 윤곽을 고찰하고 국어학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찾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국어학적 연구는 별고에서 시도할 것이다.

10) 여기서 鄉藥名이란 이은규(2014: 100)에 따라, ‘의서나 처방과 관련된 텍스트 혹은 목록에 나오는 약재를 가리키는 고유어나 한자어’로 정의하기로 한다.

3.1.1 草部

<표 3> 草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¹¹⁾	오구라문고 필사본(L174597)	동양문고 『경험방휘편』 萬藥名記
威靈仙	줄위늑물불휘	줄위늑물불휘	줄위늑물불휘
蒼茸	독고마리	독소마리	독고마리
白芷	구리댓불휘	구리뺏불휘	구리대불휘
天南星	두여머조자기	두여머조자기	두여머주자기
草麻藥	아즈가리¹²⁾	아즈가리	아즈가리
甘菊	강성황	강성황	강성화
大黃	---	---	---
將軍草根	---	---	---
葛花	출곳	축곳	----
麻黃	---	---	---
半夏	괴믈웃	괴므웃	괴므웃
細辛	---	---	---
菖蒲 九節者	---	---	---
地黃	---	---	---
貝母	---	---	---
白茯苓	---	---	---
蒼朮	삼쑤불휘	삼쑤불휘	삼초불휘
益母草	눈비앗	눈비앗	눈비앗
黃連	---	---	---
蒺藜子	납가식	납가식	납가식
野菊花	들국화	들국화	들국화
蘊子	츠족이뻘	츠조기뻘	츠족기씨
地膚子	때뻘리여름	대뻘리여름	땀사리
決明子	초결명	초결명	초결명
柔荑	---	---	---
白茅根	뽕불휘	뽕불휘	뽕불휘
柴胡	뽕미나리	뽕미나리	뽕미나리
草龍胆	과남풀	과남풀	과남풀
地骨皮	구괴즈불휘	구괴즈불휘	구괴즈불휘
蛇床子	비암돌앗	비암다앗	비암쌀기
升麻	씨틸가릿불휘	씨널가릿불휘	덕갈불휘
苦參	쓴너삼불휘	쓴너삼불휘	쓴너삼불휘
車前子	길경이뻘	길경이뻘	길경씨
天花粉	하늘타리불휘	하늘타리불휘	하늘타리불휘
麥門冬	겨으사리불휘	겨으사리불휘	겨으사리불휘
河首烏	---	---	---
燈心草	골속	골속	골속
紅花	잇비라	잇씨	잇시
雀瓢	새박조가리	식박조가리	새마지
牛膝	쇠므옴지기	쇠무릅지기	쇠므옴풀

11) 목판본은 규장각본 3종, 고대 만송문고본(C6 A19A), 한글박물관본, 오구라문고본(L174596)의 표기이다.

12) 굵은 글씨는 연문표기가 일치하는 예임. 이하 동일함.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¹¹⁾	오구라문고 필사본(L174597)	동양문고 『경험방휘편』 萬藥名記
遠志	아기플불휘	아기플불휘	아기플불휘
臘茶	납설슈	---	---
馬齒莧	쇠비옴	쇠비름	쇠비름
知母	---	---	---
鳳仙花	봉소화	봉송화	봉소화
兔絲子	새삼씨	식삼씨	새삼씨
石蓮子	---	---	---
澤瀉	쇠귀느믈불휘	쇠귀느믈불휘	쇠귀느믈불휘
香附子	---	---	---
膏淋	너삼	너삼	너삼
百合	개나리불휘	당가나리불휘	개나리불휘
野茨菰	물웃	물웃	물웃
王不留行	당고새	당고재	장고재
沙參	더덕	더덕	더덕
貫衆	회춤	회춤	회춤
藕	넌불휘	넌불휘	넌불휘
蒲黃	부들곶꺾오	부들곶꺾로	부들곶꺾로
雞蘊	---	---	---
葵菜	아욱	아욱	아욱
蓴菜	--- 순치 ¹³⁾	---	---
【廿/石】苳	부류	부류	부류
羊蹄根	솔웃불휘	솔웃불휘	솔웃불휘
芭蕉	파초	파초	파초
馬鞭草	---	---	---
射干根	범부채불휘	범부채불휘	범부채불휘
蛇莓草	빅암딸기	빅암딸기	---
佛手草	브쳐손	부쳐손이	붓혀손
夏枯草	저비쌀	저비쌀	저비쌀
葶藶	두루미나시씨	두루미나시씨	두루미나시씨
浮萍草	머구리밥	머구리밥	말밥
馬兜鈴	쥐방울	쥐방울	쥐방울
鵝栗殼	양고미쌀든겹질	양고미쌀든겹질	양고미쌀든겹질
藜蘆	박새	박시	박새
葵子	아욱씨	아욱씨	아욱씨
茵實	---	---	---
胡粉	---	---	---
莎草	---	썩	---
蕨根	고사리불휘	고사리불휘	고사리불휘
茵陳	더우각이	더우자기	더오자기
忍冬	겨으사리너출	겨으사리피째양너출	겨으사리너출
防風	병풍느믈불휘	병풍나믈불휘	방풍느믈불휘
王芩	쥐춤의불휘	쥐춤위불휘	쥐춤의불휘
牛蒡	울윙	울윙	울윙
乾荷	물은넌	물은넌	믄넌

13) 오구라문고 목판본에 필사되어 있다.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¹¹⁾	오구라문고 필사본(L174597)	동양문고 『경험방휘편』 萬藥名記
檢和草	---	---	---
薯蕷	마	마	미히
一母花核	---	---	---
蘆葦	---	---	---
薺菟	---	---	---
鷄冠草	만드아미풀	단논아미풀 似是 민도람풀	만들아미풀
蛇含草	---	---	---
蒲公英	안존방니 又名 무은드네	인조빙들레 又名 뒬음	안존바기 又 무은드이
青蒿	---	---	---
瓜蒌仁	하으타리빠라	하늘타리빠	하늘타리씨
旋菖	---	---	---
葎草	---	---	---
酸漿	꼬아리	꼬아리	꼬아리
金禪草	---	---	---
白頭翁	주지곳	주지곳	주지곳
鼠粘子	우윙삐	윙삐	우엥씨
桔梗	돌랏	도랏	돌앗
三稜	믹자깃불휘	믹자깃불휘	매지깃불휘
川烏	---	---	---
蛇莓子	---	---	비암설
蛇含草	---	---	비움의혀풀

草部는 총 104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표 3>에 보이듯이 목판본과 필사본이 모두 같은 표기를 보이는 것은 12개의 항목밖에 없어서, 모음에 있어서는 ‘·’의 혼동, 자음에 있어서는 어두 합용병서의 차이 등 표기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3.1.2 木部

<표 4> 木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휘편』 萬藥名記
秦椒	분디여름 又云 논디	분디여름 又 논디	분지여름 又 논디
烏梅	넉췌여겨문미실	넉뻘여겨문미실	넉췌여겨문미실
白梅	그저물논미실	그저마른미실	그저믄미실
五倍子	복나모이음	복나모이음	썰나모여음
榛木	개암나모	개암나무	개암나모
荊津	논디	논디	논디
牟芒	보리ㄱ스릭기	보리가스라기	보리ㄱ스악기
栗殼	밤겍질	밤겍질	밤겍질
杏仁	살고삐	살고삐	솔고씨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萬藥名記
桑白皮	썩나모엷덜	썩나물엷질	썩나모겅질
黃蘗皮 一云黃栢	황경피	황경피	黃경피 又 黃栢
枸杞	괴좃나모	괴좃나모	괴좃나모
丁香	---	---	---
郁李根	뫼이스랏블휘	---	뫼니스랏블휘
茴香	---	---	---
地榆	외느믈불휘	외나믈불휘	외느믈불휘
胡荽根	고시	고시	고새
松公伊	---	---	---
槐茸	회화나모버섯	회화나무버섯	괴화나모버섯
眞木皮	굴겅덜	굴겅질	---
赤虫皮	---	---	---
千金木	---- 북나므 ¹⁴⁾	----	썰나모
伊羅里	일아리	일아리	이아리
笠菌	갓버섯	갓버섯	갓버섯
柳絮	버들개야지	버들ㄱ야지	버들개야지
白楊	시즈나모	사시나모	사스나모
桐白	머괴나모	머괴나무	머괴나모
木槿	무궁화	무궁화	브국화
乳香	---	---	---
樺皮	벗	벗겅질	벗
皂莢	쥐엄나모여름一云阜角	주엄나모여름	주엄나모여름 又 皂角
柎木	뽕리	뽕리	싼리
榕木	귀룽나모	귀룽나무	귀룽나무
松明	관솔	관솔	관솔
松筍	솔순	솔순	---
厚朴	---	---	---
竹茹	왕대겅덜	왕대겅덜	왕대겅질
靑皮	프은굴	풀은굴	프은굴
陳皮	동덩굴	동덩굴	굴겅질
玉梅花根	---	---	---
商陸	자리공불휘	자리공불휘	자리공불휘
通草	으흐름너출	어름너출	음츠음바출
吳茱萸	---	---	---
牽牛子	---	윙씨	---
黃芪	돈너삼불휘	돈너삼	돈너삼불휘
連翹	이스리나모	이스리나무	어사리나모
五加皮	짜들흙	짜두릅	짜들읍
郁李仁	---	뫼이슬앗뻬	---
松茸	---	---	솔솔

木部는 총 49항인데, 역시 <표 4>에 보이듯이 표기가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괴좃나모[枸杞], 머괴나모[桐白], 관솔[松明]만이 같은 표기로 나타난다.

14) 오구라문고 목판본 필사

3.1.3 禽部

<표 5> 禽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萬藥名記
鴟	쇼르기	소르기	소르기
鴈肪	그러긔기름	기러기 기름	기억기 기름
雀腦	새머리골	새머리골	새머리골
班鳩	외비둘기	외비들이	외비둘기
梟肉	웃밤의고기	웃밤의고기	웃바미고기
鶉	외츠아기	외차아기	외츠라기
鸛骨	황새	황식	새
胡燕窠	명막의집	명막의집	명막의집
鴛鴦	부렁이	부형이	브형니
蟬退	마암의허들	믹암의허들	매암의허들

날짐승을 뜻하는 禽部는 총 10개의 항목이며, <표 5>에서 새머리골[雀腦] 한 개의 항목만이 서로 같은 표기를 보여준다.

3.1.4 獸部

<표 6> 獸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萬藥名記
鹿角霜	---	---	---
牛酪乳	타락젓	타락젓	타락젓
地蛇	---	---	---
雄独	---	---	---
烏犍牛	검은수소	검은수소	거른수소
黃獐	죽저비	죽저비	죽저비
蝙蝠	불쥐	복쥐	불쥐
射香	큰눌의비곶	큰눌희비곶	국눌릭비곶
息肉	---	---	---
弊馬梳	눌근물솔	늑근말솔	눌근물솔
鞭鞘	---	---	---
血余灰油	---	---	---

<표 6>에 보이듯이 獸部는 12개의 항목인데, 언문으로 표기된 항목 가운데 타락젓[牛酪乳] 하나의 항목만이 일치를 보인다.

3.1.5 穀部

<표 7> 穀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휘편」萬藥名記
神曲 五月五日別造曲	---	---	---
糯米	좁쌀	참쌀	좁쌀
巴豆	---	---	---
梗米	도흔니쌀	조흔니쌀	도흔쌀
陳倉米	창의드러무근쌀	창의드러무근쌀	창에드근쌀
秣米	출기장쌀	출기당쌀	출기장쌀
麴皮	밀겉널	멸겉널	밀겉질
瞿麥	식독화	식회	명랑니곳
粳粟米	정히디흔좁쌀	정히떠흔좁쌀	정히지흔좁쌀
浮小麥	귀밀	귀밀	귀밀
耳麥	귀오리 又云雀麥	귀우리	괴오리
胡麻	---	거문좁개	검은좁개
黃梁米	누른양미	누른양미	누른양미
大麥蘖	보리기름	보리기름	보리기름
麻油	---	---	---
白塩	---	---	---
豉	청국	청국	청국
香油	흰좁개놀로싼기름	흰좁개놀로싼기름	흰좁개싱로싼기름
靑塩	엷거든 소금을 쓰라	얇거든 소금을 쓰라	엷거든 그저 쓰라
塩花	---	---	---
百荷塩	년닙일빅의싸구은소금	연입일빅의빠구은소금	년빅닙의 사 구은 소금

穀部는 총 21개 항목인데, 약물명의 언문이 적혀있지 않은 항목이 5항이고, 언문 표기의 경우에도 서로 일치하는 항목이 귀밀[浮小麥], 청국[豉] 2항뿐이다.

3.1.6 菜蔬部

<표 8> 菜蔬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휘편」萬藥名記
韭	부취	부취	부취
蘿菔	대므오	대무	대므오
紫菀	초조기	초조기	초조기
蒜	마늘	마날	마늘
獨頭蒜	외토리마늘	외톨마날	외도트리마늘
蔓菁	싯므오	싯무	싯므오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萬藥名記
菰菜	빅치	빅치	빅치
薺菜	나이	나이	낭니
蕒荷	양하	양하	양하
瓜蒂	외곡지	외곡지	외곡지
薺菜	염교	염교	염교
松蘿	소나모우희송낙	소나모우희송낙	소나모우희송낙
蕪菁	---	---	---
海菜	---	---	---
淡菜	----- 홍합 ¹⁵⁾	---	---
薄荷	영성이	영성이	---

<표 8>은 菜蔬部의 향약명을 대교한 것인데, 총 16항 가운데 5개 항목의 언문 표기가 일치한다.

3.1.7 果部

<표 9> 果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萬藥名記
桃梟	남괴셔 물나 셋달의 쯔 거시라	남괴셔 물나 셋달의 쯔거시라	남괴셔 믈론 복소아
桃奴 上同	---	---	---
檳榔	---	---	---
梔子	비즈	비즈	비즈
側栢子	측빅나모여름	측빅나무여름	측빅여음
枳殼	--- 텅즈엿달 ¹⁶⁾	---	-----
酸棗仁	뽕대초뽕	뽕대초뽕	뽕대초뽕
冬瓜子	동화뽕	동화뽕	동아씨
川椒	전초	전초	전초
山查肉	아가외	아가외	아가외
覆盆子	나모쌀	나모쌀	나모쌀기
海松子	잣	잣	잣
橡實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梔子	지지	---	치즈
枳實	텅즈여름	텅즈여름	텅즈여음

果部는 총 15항목으로, 비즈[梔子], 아가외[山查肉], 도토리[橡實] 세 개의 항목만 언문 표기가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르다.

15) 오구라문고 목판본 필사

16) 오구라문고 목판본 필사

3.1.8 水部

<표 10> 水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 萬藥名記
碧魚水	---	---	---
井花水	새배 처엄 기른 우물이라	식비처엄기른우물이라	사비 첨 지은 우물라
百沸湯	빅번이나 삶은 물	빅번이나 삶은 물	빅번 쪄힌 물라
碧海水	바다 찼물	바다 찼물	바다 찼 물라
海粉水	바다조개 우린 물	바다조기 우린 물	바다조기 운 물라
五木水	---	---	---
黃水	---	---	---
鐵液漿	무쇠 덩가 우린 물	무쇠 담가 우린 물	무쇠 운 물라

水部는 총 8개의 항목이 있는데, 언문 표기가 부재되지 않은 항목이 3항이고 세 종류의 언문 표기가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

3.1.9 土部

<표 11> 土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 萬藥名記
伏龍肝	오랜 손밧딴 누른 흙	오랜 솟밧희 누른 흙	---
囟中土	---	---	---
百草霜	오랜 브릭 겹디양	오린 부엌 겹디양	---

土部는 총 3항목 중 언문으로 된 향약명이 2항이며, 『경험방회편』의 <萬藥名記>에는 표제어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목판본과 오구라문고본의 표기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3.1.10 火部

<표 12> 火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 萬藥名記
糠火	겉불	겉불	겉불

火部는 ‘糠火’ 한 개의 항목만 있는데, 겉불(목판본, 동양문고 만약명기), 겉불(오구라문고)과 같이 원순모음화를 겪은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3.1.11 金部

<표 13> 金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휘편』萬藥名記
銅桴	---	---	---

金部는 ‘銅桴’이 표제항으로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향약명이 달려있지 않다.

3.1.12 人部

<표 14> 人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휘편』萬藥名記
髮灰	---	---	---
京墨	---	---	---

人部 역시 한자로 된 표제항은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향약명이 달려 있지 않다.

3.1.13 石部

<표 15> 石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휘편』萬藥名記
砥石	숫돌	술돌	선돌
硃砂	---	---	---
黃丹	---	---	---
白礬	백아 불의 노기면 枯礬 又云 礬石	바아 불의 노기면 枯礬 又云 礬石	쌔아 불의 노기면 枯礬 又云 礬石
雄黃石 雄黃	---	---	---
眞粉	---	---	---
石膏	---	---	---
黃礬石	---	---	---
粘土	츠돌	츠돌	---
砒礪	비상	비상	---
黃精	뚝뚝불회	뚝뚝불회	---
雲母粉	뚝비늘ㄹ로	뚝비늘갈오	뚝기늘ㄹ로

石部는 총 12항목으로, 향약명은 6개만이 붙어 있는데, 향약명의 표기가 서로 다르다.

3.1.14 虫部

<표 16> 虫部の 鄉藥名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회편』萬藥名記
蚯蚓 地龍	---	---	---
蝟	고슴돔	고슴돔	고슴돔
田螺	울engi	울engi	우렁이
白蠱	---	---	---
青蛙	플은개고리	프은개고리	푸른기고리
蛤甲	조개껍질	도개껍질	조기껍질
露蜂房	썩별의집	닥별의집	썩별의집
蜘蛛	납거미	납거미	납거미
蟬殼	매암의허물	매암이허물	미암의허물
虻虫	사름의목의서난거의	사름의목에나난거의	사름의목의서난거의
螳螂 一云 螳螂	물둥구오리	물쑥구리	말쑥구우리
懸龍尾	들보우회 띄글돌인 것	들보우회 달닌 띄글	들보우회 띄글 돌닌 것
蚕沙	누에똥	누에똥	누에똥
大腹蛇	독사	독사	독사
蚕退紙	누에슬엇던 종회	누에뽀조회라	누에슬엇든 조회
蟻蟻	굼병이	굼병이	굼병이
馬刀蛤	물십조개	물십조기	물십조개
牡蠣	굴조개껍질	굴조기껍질	---
鱗魚	드렁허리	드렁허리	드렁허리
螻蛄	도로래	도로리	도로래
鰾魚	---	---	---
土蛇	굿비암	굿비암	굿비암
黃蛤	눌은조개	누른조기	히조개
白蛤	흰조개	흰조기	윈조개
蛭蚪	올창이	오창이	올창이
石花	굴	굴	굴
蟾蜍	두터비	두터비	독거비
鯽魚	붕어	붕어	붕어
蟹黃	게당	게장	게장
石蟹	---	---	가재
烏鱗魚	--	가물치	---
鰻鱺	비암당어	비암장어	비암장어
蜈蚣	딘에	딘의	돌진에
鮫魚	상어	상어	상어
鮐魚	로어	노어	노어
蜂萬足	---	---	---
蝎螯	---	---	갈석
白僵蚕	누에주거믄리니 一云 蚕痼	누에 죽어 마른 것	누에 주거 믄른 것
蝸牛	집딘돌팡이	집딘달팡이	돌팡이
粘蛙	출머고리	출머구리	출머고리

漢字 藥物名	鄉藥名		
	목판본	오구라문고 필사본	동양문고 『경험방휘편』萬藥名記
餅蛙	썩머고리	썩머고리	썩머고리
書中白魚	반대좁	반디좁	반디좁
全蝟	전갈	전갈	전갈
衣魚	반대좁	반디좁	반디좁
蜆	가막조개	가막조기	가막조개
海粉	바다굴근조개 ㄹㄹ	바다굴큰조기 ㄹㄹ	바다굴큰조개 ㄹㄹ
斑蝥	갈외	가을이	왜갈
黃蠟	밀	밀	밀
酥油	---	---	---

虫部는 총 49개의 항목 가운데 고슴뚝[蝟], 굽병이[蟻蝟], 드렁허리[鱧魚], 굿비암[土蛇], 굴[石花], 붕어[鯽魚], 썩머고리[餅蛙], 전갈[全蝟], 밀[黃蠟] 등 9항만이 언문 표기가 일치하고 나머지는 서로 다르다.

3.2 국어학 자료로서의 연구 가능성

국어학계에서는 최근 필사본 중심의 물명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물명류 자료는 ‘유서(類書)’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던 것인데, 전통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대부분의 유서들은 그 표제항이 한자이거나 한자어이며, 주석 부분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석을 한글로 달아서 국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문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홍윤표(2000)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자나 한자어를 표제어로 삼고 부분적으로 한글 주석이 포함되어 있는 유서들을 정리하면서 물명에 대한 유서는 “사물의 이름과 성질을 나타내는 한자 어휘들을 의미상의 상관관계에 따라 분류하여 놓고 간략한 풀이를 붙인 유서들”로 정의하고, 주로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계속적으로 편찬되었지만, 간행된 적은 없고 필사된 문헌으로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유서는 아니지만 한의학이나 본초의 연구에 사용된 자료 가운데 약물명을 언문표기로 달아놓은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자료가 국어학 자료로서 지니는 의미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목판본(규장각본 3종, 고대 만송문고본(C6 A19A), 한글박물관본, 일본 오구라문고본(L174596) 등)과 오구라문고 필사본(L174597)의 『藥物名』과 일본 동양문고 『경험방휘편』에 부재된 『萬藥名記』의 표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자로 된 ‘藥物名’에 대한 향약명의 언문 표기가 서로 다른 것이 다수 보인다. 앞으로 별고에서 이들에 대한 상세한 국어학적 고찰을 할 예정이므로 본고에서는 이 자료의 국어학 연구자료로서의 연구 가능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여기 보이는 목판본과 필사본의 표기를 통해 근대국어 시기의 국어 표기의 양상과 변화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표기의 특징으로 ‘ㅂ’계 합용병서 ‘뿌불휘(白茅根), 뜯너삼불휘(苦蔘), 초죽이씨(蘇子), 뿌리(柎木), 쌀(米), 바다뜯물(碧海水)’이 보이고, ‘ㅅ’계 합용병서 ‘뿌불휘(白茅根), 뽕나모 찻덜(桑白皮), 빙번이나 썰흔물(百沸湯), 썩(餅), 꼬아리(酸漿)’ 등이 나타난다.

‘뭇은년(乾荷)’(목판본)처럼 모음조화 현상이 문란해지는 모습이 보이며, 원순모음화 현상으로 과남플(草龍胆)(목판본) > 과남플(『萬藥名記』), 바다조개 우린 물(海粉水)(목판본) > 바다조개 우린 물(필사본), 겹불(糠火)(목판본) > 겹불(오구라문고 필사본) 등이 보인다.

18세기 후엽부터 시작되는 비원순모음화 현상이 『萬藥名記』에서 나타나는데, ‘뭇(樺皮)(목판본) > 뭇(『萬藥名記』)’으로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목판본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보이지 않다가 필사본에서는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분디여름(秦椒)(목판본) > 분지여름(『만약명기』), 도흔니쌀(梗米)(목판본) > 조흔니쌀(오구라문고 필사본), 비암당어(鰻鱺)(목판본) > 비암장어(필사본)와 같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밤겉덜(栗殼)(목판본) > 밤겉질(오구라문고 필사본, 『만약명기』), 굴겉덜(眞皮木)(목판본) > 굴겉질(오구라문고 필사본), 딴에(蜈蚣)(목판본) > 돌진에(『만약명기』)와 같이 구개음화를 반영한 과도교정 표기도 보인다.

공동격 조사 ‘-와/과’에 대한 ‘-과’로의 평준화가 보인다. ‘도로래과, 문더과’

이밖에 물명류 자료와 관련하여 어휘 연구자료로서 이 자료가 사용될 수 있으며, 방언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결 어

『四醫經驗方』은 四醫인 李碩幹, 蔡得己, 朴濂, 許任 등의 경험방들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의 경험방을 조합해서 만든 책으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명의들의 경험방과 기타 문헌들을 참작하여 이의태가 편집한 의학서이다. 한문으로만 이루어진 이 책을 읽는 데 필요한 鄉藥名을 모아 놓은 것이 『藥物名』이며, 당시에 사용된 한약재의 목록이라 할 수 있다.

『四醫經驗方』은 그동안 한의학 자료로서만 이용되어온 자료였다. 본고에서는 『사의경험방』의 異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들 간의 이본 대조를 통하여 이 자료가 醫方으로서의 연구만이 아니라 국어학 자료로서도 효용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자료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物名類의 연구와 더불어 근대국어 어휘의 연구에 보탬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이본 대조를 통한 상세한 국어학적 연구는 필자의 남은 과제이다. 동학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참고문헌>

- 박상영. “발굴 의안 고려대학교 소장 『경험방』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28-1(2015). 103-109.
- 박훈평 편.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 오준호 외 4인. “『사의경험방』 중 허임 경험방의 추출과 외치법 분석.” 『경락경혈학회지』 27-3(2010). 79-95.
- 이은규. “향약명 어휘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4호(2014). 95-135.
- 정승혜. “東洋文庫 소장 『物名括』의 書誌와 茶山의 물명고 편찬에 관한 일고찰.” 『한국어학』 59(2013). 227-244.
- 정승혜.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18(2014). 79-116.
- 정승혜 외 3인. 『일제강점기 해외 반출 조선 전적 현황 조사 연구 : 도쿄대학 소장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구(舊) 장서를 중심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정책연구보고서. 2015.
- 정승혜. “물명류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 『국어사연구』 22(2016). 81-135.
- 홍운표. “柳僖의 『物名攷』.” 『어문연구』 통권108호(28-4)(2000). 277-304.
- 홍운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2013). 167-211.
- 홍운표. “국어 어휘사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8(2014). 241-343.
- 홍운표. 『국어사자료강독』. 서울: 태학사, 2017.
- 홍운표. “물명의 연구 방법과 과제.” 『한국어사연구』 4(2018). 241-343.
- 福井玲. “小倉文庫目錄.” 『朝鮮文化研究』 9(東京大 文學部 朝鮮文化研究室, 2002). 124-182.
- 福井玲. “小倉文庫目錄 其二 旧登録本.” 『朝鮮文化研究』 10(東京大 文學部 朝鮮文化研究室, 2007). 108-130.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 도서해제(<http://kostma.korea.ac.kr>).
- 역사정보종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g, Seunghye. 2013. “A study on Mulmyeonggwol possessed by the Toyobunko, and Dasan’s compilation of Mulmueonggo.” *The Association of Korean Linguistics*, 59: 227-244.

- Chung, Seunghye. 2014.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Mul-myeong(物名)' classes." *Gugeosayeongu*, 18: 79-116.
- Chung, Seunghye. 2016. "Characteristics of Classes of *Mul-myeong* and the Material Value." *Gugeosayeongu*, 22: 81-135.
- Chung, Seunghye, Kwon, Inhan and Hwang, Sunyeop. 2015. *Study On Korean books taken Out of the Country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Hong, Yun-pyo. 2013. "A Study on Mulmyeongo." *JindanHabo*, 118: 167-211.
- Hong, Yun-pyo. 2014. "A Method of the Historical Study on the Korean Vocabulary." *Gugeosayeongu*, 18: 241-343.
- Hong, Yun-pyo. 2017. *Readings of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Seoul: Taehaksa.
- Hong, Yun-pyo. 2018. "Study on the Trend in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of Mulmyeong." *Korean Language History*, 4: 241-343.
- Lee, Eun-kyu. 2014. "Current Status of Research and Tasks on Traditional 'Hyangyak' Terminology." *Jeongshinmunhwayeongu*, 37(4): 95-135.
- Oh, Jun-Ho, Park, Sang-Young, Ahn, Samuel, Kwon, Oh-Min and Ahn, Sang-WooA. 2010. "Study on the Externally Applicable Formula of Eminent Doctor Heo Im."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7-3: 79-95.
- Park, Hun-Pyeong. 2018. *The List of Ui-Gwan of Joseon Dynasty*. Daegu: Korea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 Park, Sang-Young. 2015. "Gyeongheombang: a Recently Discovered Book of Medical Records Kept in Korea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28(1): 103-109.

